

공허한 마음 달래 줄 심심한 위로

순창 향토회관에서 27일 '송소희와 함께하는 국악 재즈 樂락' 공연 열려

국악신동에서 어느 덧 성인이 된 국악인 송소희가 오는 27일 순창 향토회관을 찾아 군민들에게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되어 성사됐다.

국악인 송소희 외에 앙상블 라 스트라다와 월드 퓨전시나위, 모해밴드, 광개토 사물놀이 등도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는 국악부터 재즈, 팝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쳐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공연 구성도 신 땀놀이, 매화타령, 뱃노래 등 대표 경기민요를 비롯해, '나탈리 콜(Natalie Cole)'의 LOVE, 대중적인 팝송인 Fly to the Sky 등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곡들로 준비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이별의 아픔 대신 또 다시

봄꽃과 함께 찾아 올 님을 기다리며 이쁜 마음을 담아낸 '사랑계절'이라는 송소희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 곡도 만나볼 수 있다.

또 송소희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비밀 이야기' 곡도 선보이며,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한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마치 못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심심한 위로도 전한다.

공연 시작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며, 군민들을 위해 입장료는 무료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갑자기 찾아온 이른 더위로 고생하시는 군민들을 위해 흥겨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또 군 측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시작 30분전까지는 입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660-1626)로 하면 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북대 예술대학 음악과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예술융합 공연팀 'PETAL'.

“비와 관련된 사연, 음악으로 들려드려요”

전북대 예술융합공연팀, 오늘 라디오콘서트 개최

전북대 사범대 예체능관 예연홀에서는 오늘 오후 7시 30분 비와 관련한 소중한 사연이 음악으로 연주되는 이색적인 공감형 콘서트라고 밝혔다.

전북대 예술대학 음악과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예술융합 공연팀 'PETAL'이 마련한 이번 공연은 비와 당신이라는 주제의 라디오 콘서트다.

이번 콘서트는 종강을 맞아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순수 예술이 비전공자들에게 좀 더 쉽고 깊게 공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공연이다.

공연은 비와 관련된 소중한 사연을 받아 그에 걸맞은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연 전 PETAL 대표 전화(010-2422-2063)로 사연을 보내면 공연단이 무대에서 그에 맞는 음악을 연주한다. 사연은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귀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과 소통의 무대라 할 수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다.

이 공연단 정치현 대표는 "일상에 지친 많은 이들과 예술로 소통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공연장을 찾아 좋은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플린다스의 개 이야기'를 주제로 한 Merry Christmas Nero 공연을 비롯해 올해 4.16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등 한 가지 테마를 정해 순수 예술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지난 20일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고창농생명영화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전 세계의 농촌영화를 고창에서!

고창 농생명영화제 성황리 마쳐

전 세계의 농촌영화를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제2회 고창농생명영화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0일 고창군 부안면 북분자클러스터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영화제 상영작의 감독과 출연 배우, 영화계 인사, 일반 관람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작인 '여름이 준 선물'을 연출한 이영재 감독은 고창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1999년 '내 마음의 풍금'을 촬영할 때 바

로 고수면 조산분교(고창군 고수면 조산리)가 메인 로케이션 장소였다.

이영재 감독은 관객과 대화에서 "전국 많은 곳을 다녀왔지만 고창만큼 한국 농촌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20년이 넘었지만 당시 고창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제는 29일까지 4일간 북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서 펼쳐졌다. '내 마음의 풍금' 개봉 20주년 특별상영을 비롯해, 애니메이션과 단편영화를 통해 한·중·일의 70~80대 농촌풍경을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21일 11시에 진행된 '농부가 직접 만든

농촌영화'도 큰 관심을 끌었다. 경북 상주 박동일 감독의 '산촌에 간 아가씨들(35분)', 경기 용인 황동욱 감독의 '쌈말이야기(17분)', 충남 서천 노영미 감독의 '태모시(15분)', 전북 군산 나중식 감독의 '고추이야기(7분)', 전북 임실 한미연 감독의 '비온뒤(15분)' 등 5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이 외에도 '사람살려 고창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 '농부, 토종씨앗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농촌인문학 강좌가 진행됐다.

폐막작은 마스터클래스 발표로 진행됐다. 봉만대, 임성운, 김대현 감독의 지도로, 청년과 고창주민(성송면 관정마을)이 각각 팀을 구성해 10분 내외의 단편영화를 제작 발표하는 '고창단편영화의 밤(23일 오후 7시30분)'을 끝으로 영화제의 막을 내렸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내장산서 문화재지킴이의 날 기념식 성료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이 지난 22일 정읍시 내장산 야외 특설무대에서 전국 문화재지킴이 회원 등 약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 이하 '한지연')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가 후원했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지난해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기 위해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했다.

또 전국에서 활동하는 8만여 명의 문화재지킴이들이 '국민 스스로가 문화재의 주인이 되어 이를 가꾸고 지켜가는 국민참여형 운동'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경북공공에서 '문화재지킴이날'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첫 번째 열린 기념식은 전주사교의 '조선왕조실록'을 이안하여 유일하게 지켜낸 역사적인 장소인 내장산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실록 이안(移安)을 재현한 연극 공연과 시장의 환영사, 문화재지킴이 활동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실록을 지켜냈던 역사가 담긴 내장사 용굴암을 직접 답사하는 역사 탐방이 있었다.

한편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했다. 현재 전국 8만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가족·학교·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있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